



## 신하늘 목장서 우유요리교실 열려

경기도 화성소개 신하늘 목장(이정희 여성분과 위원 경기도위원장)에서 지난 6월 22일 1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요리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우유 여성분과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우유가 실시하는 '제3기 서울우유 주부대학'의 수업과정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몸으로 체험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는 4~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11개 팀이 우유두부, 치즈튀기, 타락죽, 우유칼국수, 우유빙수 등 각기 주제를 정해 우유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해보는 순으로 상장과 상금은 없지만 모두들 진지한 모습으로 우유로 각기 다른 내용의 작품을 만들어 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울우유 한창희 과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주간 진행된 과정으로 다음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장안대학에서 졸업식을 갖기 전 마지막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 여성분과 회원이며, 조합원인 여성 낙농인들이 지역행사 시 우유요리 시식행사를 많이 갖는다"며 "여성낙농인이 먼저, 더 많이 알아야 우유소비 홍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 하에 서울우유는 매년 주부대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대학과 같은 이러한 행사는 짧게는 지역 사회의 친목과 봉사의 기회를, 넓게는 대국민 우유소비 홍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들이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

